

# 나주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들어선다

혁신산단에 1,070억 투입 2022년 준공 예정  
연간 16만MW 전력 생산... 지역발전 새 전기

나주 혁신산단단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20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선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장실에서 아이티파워 나주연료전지발전소(대표이사 신양우)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료전지발전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역이용, 수소를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해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전기화학 방식을 이용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단계부터 전기생산까지 환경오염물질이 1%도 나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다.

아이티파워는 협약에 따라 나주 혁신산단 8,222㎡ 부지에 20MW급 연료전지발전설비 건립을 추진한다. 투자금액은 총 1,070억 규모로 올해 8월 착공해 2022년 2월까지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

20MW급 발전소가 운영되면 연간 16만1,345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나주시는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적 지원에 착수한다.

발전소 건립의 공동투자사를 맡은 한전 KPS는 설계·조달·시공(EPC)을 주관한다.

또 한국중부발전(주)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와 유지·관리(O&G)를, 네오마루(주)는 사업개발 및 EPC를 공동 이행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2년여에 걸친 건립 기간 및 향후 20년여 간 발전소 운영을 통해 건설 인력 8,400여명, 운영인력 100여명 등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산단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은 전남 에너지산업업 규제자유특구 핵심 사업인 대용량 분



나주시는 지난 13일 시장실에서 아이티파워 나주연료전지발전소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산 전원 연계 MVDC(중압직류배전) 실증사업과 연계해 산단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발전소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혁신산단은 지난해 11월 혁신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테스트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총 390억원 규모의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를 목표로 한 MVDC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177개 기업과 1조 1,08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중 125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 분양률 75%를 달성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성군이 개발한 새싹삼 돈가스와 새싹삼라메. /장성군 제공

## 장성 '새싹삼' 웰빙채소 각광

면역력 증진·착한 가격 소비자 호응

장성에서 생산되는 '새싹삼'이 웰빙채소로 각광받고 있다.

장성군은 국내 새싹삼 수확량의 60%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산지다. 총 38개 농가에서 5.52ha를 재배하고 있다.

장성은 새싹삼 재배에 최적화된 특화시설에서 인삼 맞춤형 토양을 사용한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과 공동으로 개발한 특산품으로 상추 아파트시스템을 접목해 뿌리와 잎, 줄기까지 섭취할 수 있다.

새싹삼은 간을 보호하고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주며, 사포닌 성분이 함유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은 100뿌리 당 2만원 정도로, 가격대비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체질이나 복용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장성군은 지난해 새싹삼돈가스, 새싹삼라메 등 새싹삼을 활용한 음식 레시피 20여종을 개발해 관내 음식점에 제공하기도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새싹삼은 몸이 좋고 가격도 착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건강한 섭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장성 새싹삼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 장흥서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9월 열린다

전남교육청 개최지 최종 확정  
22개 시군 총 8,500여명 참가  
지역경제 직·간접 효과 41억원

오는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2020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개최지로 장흥군이 최종 선정됐다.

15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장흥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0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는 전남 22개 시군 초·중·고등학교생 6,000여명과 학부모 2,500여명 등 총 8,500여명이 참가하는 청소년 스포츠 행사다.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풋살, 창작댄스 등 19개 종목 스포츠와 각종 문화체험을 병행한다.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직접효과 19억원, 간접적 효과 22억원 등



장흥군이 전남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0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장흥군 제공

총 41억원이 예상된다. 장흥군교육청, 장흥군교육지원청, 장흥군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남 청소년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 함평 공익형직불제 준비 본격화

내달 경영정보 변경신청 접수

함평군이 올해 첫 시행되는 공익형직불제를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농정 관련 기관과 업무분담회의를 열고 지난해 개정된 '공익중진 직불법'의 변경된 사업추진 절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편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한 요건(영

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등)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이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역직적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선택형 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 수령 가능하다. 군은 내달 17일 경영정보변경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직불신청서배포(4월 말), 직불신청서 접수(5월 말) 등을 차례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준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화순 꽃 선물하기 캠페인

화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 농가 돕기에 나섰다. 화훼 농가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축소되면서 꽃 소비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꽃 선물하기' 캠페인을 펼쳐 공직자에게 구매 신청을 받았다. 공직자들은 지역의 화훼 농가가 재배한

알스트로메리아와 프리지아 620다발을 구매했다.

구중곤 군수는 "코로나19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농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도 꽃 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서호영 기자



#### 나주, 대구·경북지역 배급 지원

나주시는 농협나주시조합운영협의회(회장 최공섭)와 함께 대구·경북지역과 자매결연도시 등 7개 지자체에 기관 건강에 좋은 배급 960박스를 지원했다.

배급은 코로나19 확진자 최대 발생 지역인 대구시를 비롯해 경북 지역 동주도시인 영주, 상주, 경주, 강원 원주시,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동대문구, 중

로구에 농협APC 차량을 통해 각각 전달됐다.

강인규 시장은 "나주에서도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타지역 시·도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공감하고 있다"며 "어렵고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다 보면 오늘의 위기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정남진수목원, 장흥군에 수목 기증

정남진수목원 장흥기 대표가 수목 7종 819주를 장흥군에 기증했다. 기증 수목은 황칠나무, 수양버들 등 정남진수목원에서 관리해 온 조성수다. 군은 기증받은 수목을 가로수 식재와 경관숲 조성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흥군 대덕읍에 위치한 정남진수목원은 화목원, 들품원, 후박원, 단풍원 등 18개의 특색 있는 주제정원으로 이

뤄져 있다. 국내에서 오래된 황칠나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관련 상품을 개발하는 등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수목 기증 문화가 계속 이어져 장흥군의 산림자원이 더 풍부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